

# 코로나19가 바꾼 한국사회 성평등지형: 위기와 기회

장미혜 한국여성정책연구원 선임연구위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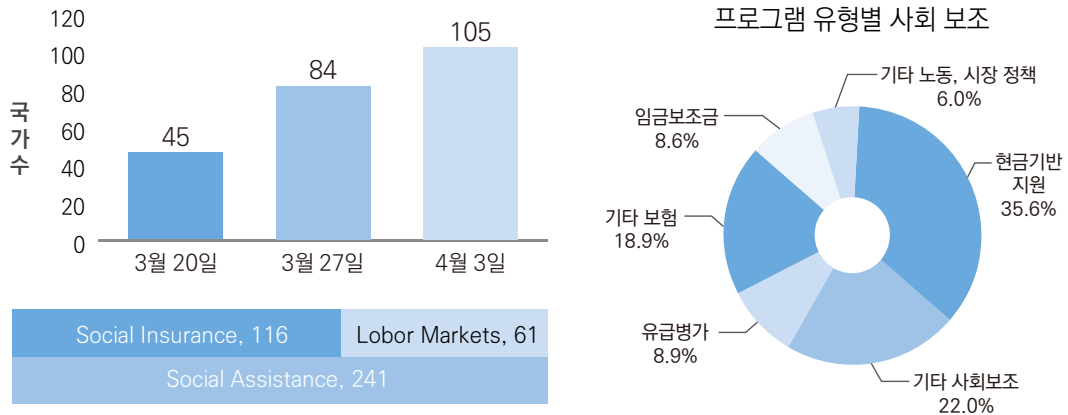
## 1. 들어가는 글

지난해 발생한 코로나 바이러스(COVID-19)가 확산됨에 따라 각 국가마다 봉쇄조치를 강화하면서, 개인들간의 사회적 거리두기, 이동제한 조치, 확진 자들에 대한 자가격리, 휴교 및 재택근무 등이 시행 되었다. 사람들 간의 접촉을 최소화시키기 위해 행해진 이러한 조치들로 인해 사람들의 공적공간에서의 활동이 위축되고 가정 내에서 보내는 시간은 증가하게 되었다. 쇼핑센터와 음식점 등 사람들이 많이 이용하던 상업시설들이 영업에 어려움을 겪게 되고 폐업이 속출하면서 자영업자의 도산이나 실직으로 이어지게 되었다. 코로나19 환자로 인한 병상확보로 인해 임산부나 만성병을 앓고 있는 다른 환자들, 일반환자들은 의료시설을 이용하는 데 있어서 어려움을 겪게 되었다. 이처럼 코로나19(이하 코로나로 칭함)라는 이제까지 한 번도 경험하지 못한 질

병적 재난상황에 직면하게 된 것이다. 이로 인해 사람들의 대면적인 접촉이 제한되는 이른바 언택트 시대에 접어들면서 모든 사람들이 어려움을 겪었지만, 그 영향은 사회적인 집단이 처한 위치에 따라 다르다. 우리는 여기서 코로나가 미친 영향은 남성과 여성에게 어떻게 나타났는지, 그리고 이러한 상황이 향후의 여성정책에 어떤 영향을 미칠 것인지에 대해서 짚어보고자 한다.

## 2. 코로나와 젠더 불평등의 심화

코로나가 젠더불평등에 미친 영향에 대해서 UN, UN Women, OECD 등 주요 국제기구 보고서에는 크게 건강, 경제, 돌봄, 폭력 등 분야별로 젠더 불평등을 심화시키는 결과를 초래하고 있다고 보고하고 있다(UN Women, 2020).



[그림 1] 국가별 코로나19 위기에 대응하기 위한 정책도입 국가 수 및 프로그램 유형

## 가. 경제적 불평등

2008년 금융위기때는 남성지배적인 일자리 부문에서 실직율이 증가하였던 반면, 이번 코로나 확산 중에는 여성들이 많이 종사하고 있는 관광업, 도소매업, 음식업, 사회서비스업종의 일자리가 감소하였다. ILO보고서에 따르면, 전 세계적으로 항공산업 종사자의 47%, 요식업 종사자의 53%, 숙박업 종사자의 60%, 도소매업 종사자의 62%가 여성인 것으로 알려져 있다(ILO, 2020). 이들이 일자리를 잃으면서 공식적으로 남성보다는 여성의 임금노동시간이 감소한 것으로 나타나고 있다(OECD, 2020: 6). 코로나로 인한 피해는 이러한 대면업종 종사자뿐만 아니라 비공식 부문에서 일하는 근로자에게도 영향을 미쳤다. 인구의 많은 부분이 비공식 고용에 종사하는 여성들의 일자리 손실률은 모든 국가에서 25~56%에 이르는 것으로 보고되고 있다(UN Women, 2020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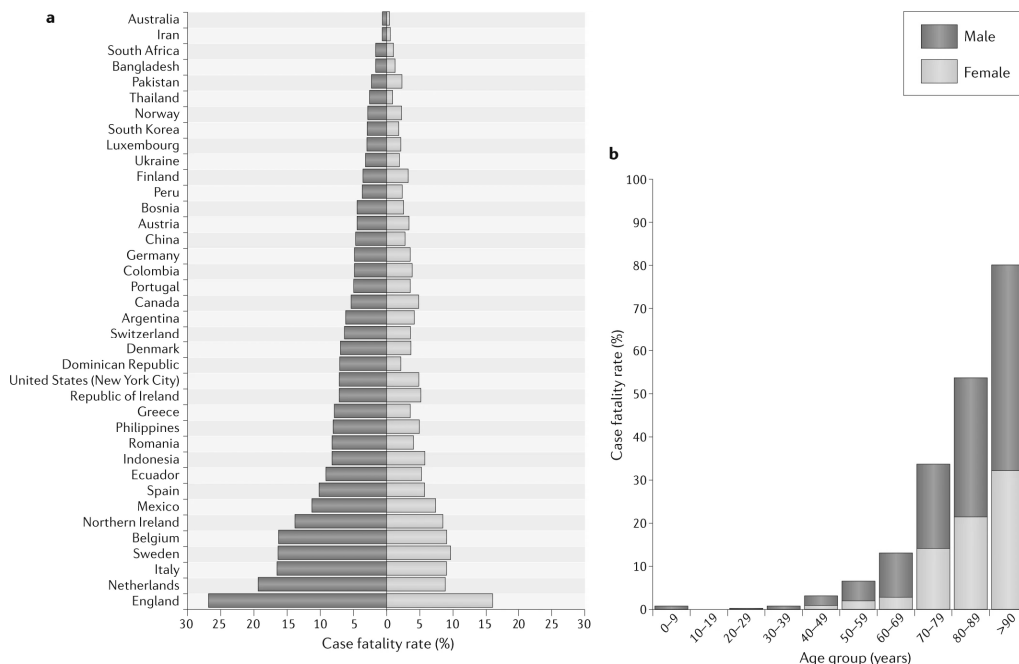
이러한 경제적 위기상황에 대응하기 위해 코로나가 발생한 직후인 3월 20일에는 45개국에서, 27일

에는 84개국에서, 4월 3일에는 105개국에서 지원 정책이 시행되었다. 정책의 내용을 보면, 35.6%가 현금지원, 22.0%가 기타 사회보조, 18.9%가 보험금의 지급, 8.9%가 유급병가, 8.6%가 임금보조, 기타 노동시장 정책이 6.0%를 차지하고 있었다(UN Women, 2020e). 한국의 경우 재난보조금 이외의 집단별 지원정책이 시행되지 않았으나, 추후 재난보조금 수혜의 성별영향평가가 이루어질 필요가 있다.

코로나가 종식된 이후에 대면적인 접촉을 기반으로 하는 서비스직종의 일자리로 여성들이 다시 복귀하게 될 것인지, 그 속도는 어떠한 것인지, 국가별로 어떻게 차이를 보이는지에 대한 추후의 연구가 필요하다.

## 나. 건강의 불평등

대부분의 국가에서 감염률과 이환율 데이터에 따르면 코로나 바이러스로 인한 사망 가능성은 남성이 더 높은 것으로 알려져 있지만, 코로나의 정서적 영향은 여성에게 불균형적으로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출처: Scully, E. P., Haverfield, J., Ursin, R. L., Tannenbaum, C., & Klein, S. L. (2020). Considering how biological sex impacts immune responses and COVID-19 outcomes. *Nature Reviews. Immunology*, 20(7), 442-447. <https://doi.org/10.1038/s41577-020-0348-8>

[그림 2] 국가, 성별 및 연령별 코로나 사망률 비교 분석

보고되고 있다(OECD, 2020).

코로나로 인한 사망률의 성별 및 연령별 사망률 표는 다음과 같다[그림 2]. 38개국의 평균 남성 사망률(case fatality rate: CFR)은 평균 여성 사망률보다 1.7배 높은 것을 알 수 있다. 연령이 높아짐에 따라 남녀 모두 사망 위험이 증가하지만 30세 이상의 모든 연령에서 남성은 여성보다 사망 위험이 유의하게 높은 것으로 알려져 있다( $P < 0.05$ ).

코로나로 인한 건강상의 영향은 확진과 사망등 신체적인 영향도 있지만, 코로나는 전 세계적으로 의료시스템을 압도하여 사람들이 필요한 의료 서비스를 받기 어렵게 만든다고 알려져 있다(UN Women, 2020e). 대부분의 국가에서 설문 조사에 참여한 여성의 절반 이상이 필요할 때 의사를 볼 수 없었고, 파키스탄, 방글라데시 및 태국의 여성은 남성보다

의사 진료를 기다리는 시간이 더 긴 것으로 알려져 있다. 저개발국의 경우 많은 여성들이 비공식적 고용에 종사하고 있기 때문에 공적 혹은 민간 건강 보험에 가입할 가능성이 적으며, 필요할 때 의료 서비스를 이용할 수 없어서 적절한 치료를 받지 못하는 탓에 생존율이 낮다는 결과도 보고되고 있다(UN Women, 2020e).

감염위험 등의 신체적 건강에 미치는 영향력뿐만 아니라 정신건강에 미치는 영향력도 큰 것으로 나타났다. 이른바 ‘코로나 블루’로 불리는 우울과 불안, 자살이 증가하고 있다. 무급 돌봄과 가사 노동의 증가, 직업과 소득 손실, 성폭력에 대한 봉쇄의 영향은 여성의 스트레스와 불안의 비율을 높이는 요인 중 하나가 되고 있다. 우리나라의 경우 중앙자살예방센터가 잠정 집계한 2020년 1월부터 6월까지 6개월

동안 코로나로 인한 우울증세(코로나 블루 등)로 자살한 여성 사망자 수는 1,924명으로 전년도 같은 기간 대비 7.1%가 증가된 것으로 보고되었다(경향신문, 2020).

## 다. 돌봄의 불평등

돌봄의 영역에서 보면 학교, 육아시설, 노인/장애인 돌봄시설 등이 폐쇄되면서 민간, 공공 돌봄 서비스 중단으로 인한 사회적 공백은 여성들의 무상노동으로 메워졌다. OECD의 조사에 따르면 저개발국 여성은 남성에 비해 10배에 이르는 돌봄노동에 종사하고 있는 것으로 밝혀졌다.<sup>1)</sup> 한국과 일본의 경우 하루에 무급돌봄노동에 쓰는 시간은 남성에 비해서 여성이 2.5시간 많은 반면, 덴마크나 노르웨이 및 스웨덴의 경우 남성에 비해 여성이 1시간 정도 더 가사노동을 하며, 터키 여성은 4시간 더 가사노동을 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OECD, 2020: 4).<sup>2)</sup> 이러한 돌봄시간의 남녀간 격차는 국가별 성평등수준과 관련이 있어 한국과 일본의 여성은 남성에 비해 하루 2시간 정도 더 많이 돌봄노동을 종사하고 있는 반면에 덴마크나 노르웨이 스웨덴의 경우 1시간 정도 많은 시간을 돌봄노동에 종사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sup>3)</sup>

코로나로 인한 돌봄의 부담은 가정 외의 장소에서도 발생한다. 전 세계적으로 볼 때, 보건인력의 70%(OECD, 2020:3), 104개국을 대상으로 한 조사에서 간호사와 산파의 85%(Boniol et al., 2019), OECD 국가의 경우 장기요양인력의 90% 이상이

여성으로(OECD:2020:3), 이들은 코로나 위기의 최전선에서 감염위험에 노출되어 있을 뿐만 아니라 이들 중 44%는 정신건강의 문제를 경험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OECD, 2020:4). 그리고 이른바 필수노동자(보육노동자, 간병노동자, 청소노동자, 조리노동자, 마트노동자, 보건의료노동자, 택배노동자, 콜센터노동자 등 먹이고, 치우고, 돌보고, 나르는 노동자들) 대부분이 돌봄 노동자이면서 여성 노동자이다. 이렇게 일터에 있는 돌봄 노동자들은 감염의 위험과 과로에 시달리고, 일자리를 잃은 돌봄 노동자들은 고립과 집안의 독박 노동에 시달렸다.

돌봄 영역에서는 재가서비스로의 전환이 전 세계적인 추세인데, 대부분의 돌봄노동이 여성에 의해 수행되고 있는 현실에서 이들을 누가 돌볼 것인지에 대한 문제가 대두되고 있다. 질병상황에서는 환자에 대한 돌봄이 부각되기는 하였지만, 고령화사회와 더불어 점점 더 돌봄을 받아야 하는 사람이 전체 인구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높아지는 상황에서 좋은 돌봄을 제공하는 동시에 돌보는 사람의 인권과 노동환경 및 적절한 임금을 보장하는 것, 두 가지는 해결해야 되는 과제라고 볼 수 있다.

## 라. 여성에 대한 폭력의 증가

친밀한 파트너에 의해 성폭력 또는 신체적 폭력(GBV)을 당한 15세에서 49세 사이의 여성은 2억 4천 3백만명(UN Women, 2020a)이다. 개발 도상국과 선진국의 많은 국가에서 봉쇄기간 동안 GBV가 증가하였다. 프랑스는 3월 17일 봉쇄 이후 가정

1) OECD Development Centre's Social Institution and Gender Index(SIGI).

2) OECD Gender Data Portal.

3) OECD Time Use Database.

폭력 사건이 30% 증가했다. 키프로스 공화국, 싱가포르, 헬프라인 전화가 각각 30%와 33% 증가했다. 아르헨티나에서 가정폭력 사건에 대한 긴급 전화는 폐쇄가 시작된 이후 25% 증가했다(OECD, 2020c). 바이러스 확산 방지를 위한 재택거리명령은 폭력적인 파트너와 있는 여성들을 더 고립시키고 도움을 받을 수 없게 만든다. 87,000명의 여성이 2017년 살해당했는데(OECD, 2020c), 희생자의 대부분은 친밀한 파트너 또는 가족에 의해서 사망했다. 여성과 소녀에 대한 폭력은 만연하지만 잘 드러나지 않는다. 폭력이나 범죄를 경험한 여성 중 40%만이 신고를 한다(OECD, 2020c). 전 세계적으로 여성에 대한 폭력으로 인한 비용은 대략 1.5조 달러이며 이 수치는 코로나 팬데믹이 지속될수록 더 증가할 것이다.

### 3. 코로나 이후의 여성정책의 방향

온라인 플랫폼을 기반으로 한 경제가 성장하면서 이전에는 불가능했던 자산과 자원, 시간과 기술의 공유가 놀라울 속도로 증가하고 있다. 디지털 기술을 기반으로 한 새로운 경제체제는 소비자에게 보다 폭넓고 광범위한 서비스를 저렴한 가격에 제공해주는 할 것이다. 플랫폼 경제(Platform economy)에서 창출되는 일자리에 대한 접근에 있어서 남녀간의 임금격차는 더욱 벌어질 수 있으리라는 부정적인 예측과 노동시간의 유연성으로 인해 보다 수월하게 돌봄의 책임을 완수할 수 있어서 출산율이 증가하리라는 긍정적인 예측이 엇갈리고 있다(UN ECLAC, 2019:90) 디지털 기반 경제에서 재택근무의 기회는 22% 증가할 것으로 예상된다(UN ECLAC,

2019:90). 플랫폼 경제에서 근무하는 노동자들은 다른 분야에서 일하는 노동자의 1/5에 불과한 주당 20시간만 근무가 가능해지는 상황이 올 수 있어(Berg and Others, 2018), 여성들이 가사노동을 균형있게 완수할 수 있는 가능성도 높아질 것으로 예측되고 있다. UN ECLAC은 다가올 2030년에 시간의 유연성과 업무자율성의 증가는 남성뿐만 아니라 여성에게도 주어질 수 있는 혜택이 되리라고 전망하지만(UN ECLAC, 2019:91), 이러한 일자리에 진입할 수 있는 것은 소수의 여성들일 것이다. 재택 및 원격근무가 가능한 업종과 그렇지 못한 업종 간에 일자리 크기와 질적 차이가 존재하기 때문에 여성내부의 격차 증대 가능성이 높다. 좋은 일자리의 기회는 여성들보다는 남성들에게 그리고 개발도상국의 여성보다는 선진국의 여성들에게 주어질 가능성이 높으며, 코로나 상황에서 보았듯이 대부분의 여성들이 재택근무와 돌봄노동이라는 이중부담을 동시에 수행하면서 노동강도와 시간압박감이 오히려 증가할 수도 있다(OECD, 2017).

코로나로 인한 봉쇄기간 동안 행해졌던 재택근무, 유연근무제 등 일가정균형 지원 제도의 활용은 더욱 중요하게 부각될 것이며, 스마트워크 기반 구축하여 워라밸 사회실현 환경은 가속화될 것으로 예측된다. 사물인터넷, 인공지능, 빅데이터 등 기존 ICT기술을 활용한 비대면 활동을 활용한 일자리에 여성들이 얼마나 진출할 수 있을 것인가가 관건이 될 것이므로 이에 대한 대비가 필요하다.

아울러 우리는 가정이라는 새로운 공간의 다기능성에 대해서도 주목할 필요가 있다. 자가격리와 재택근무로 인해 가정은 재택근무와 원격교육이 이루어지는 근무지이자 학교로 변화되었다. 온라인 쇼핑을 통해 필요한 물품을 배송받는 장소가 되면서, 노

인과 환자의 돌봄의 책임을 지던 공적 요양시설의 기능도 일부 넘겨받게 되었다. 변화된 가정에서 성 역할이 어떻게 재분배될 것이며, 이러한 다기능적 가정에 필요한 정책수요는 무엇인가에 대해서 고민해 보아야 할 시점이다. 다시 이러한 질병적 재난상황이 발생할 경우 피해를 입은 여성들에 대한 지원 정책의 수립 방향도 논의되어야 한다. 스마트워크 기반이 구축되면서 워라밸사회의 실현이 가속화되도록 하기 위한 정책개입은 어떠한 방식으로 이루어져야 하는가? 코로나로 인한 가족 내 돌봄이 강화됨에 따라 한부모 가족, 조손 가족, 다문화 가족 등 사적 자원이 없는 취약가구의 어려움이 가중되고 있는 상황에서 어떠한 정책적 지원이 필요한가? 가족 내 돌봄 책임이 강화되면서 부부 간 역할 분담 및 가족 내 성평등에 대한 인식을 어떻게 바꿀 것인가에 대한 연구가 필요하다.

이와 더불어 코로나 이후의 각 영역별 성별 불평등 격차의 변화추이에 대한 실증적 연구가 필요하다(임금격차, 정보격차, 시간압박, 폭력의 실질적 증대 등). 현재 UN Women은 Women Count 산하에 속하는 단체들은 현재 이러한 자료 수집을 위해 노력 중이다. 한국도 관련 자료를 축적해 국제비교를 위한 자료를 생산해야 한다. 축적된 자료를 통해서 기존의 불평등과 불공정한 사회적 역학관계가 코로나 기간 중에 어떻게 변화했는지 분석할 수 있을 것이다. 이를 통해 전염병 이후 여성을 포함한 모두를 위한 지속 가능한 세상을 만들 수 있는 더 나은 기회를 제공하는 사회를 구축할 수 있는 기회를 모색해 볼 수 있을 것이다.

#### • 참고문헌 •

- 경향신문(2020). '코로나19는 공평하지 않다' 2020년 상반기 여성 자살 사망자 1924명. [https://news.khan.co.kr/kh\\_news/khan\\_art\\_view.html?artid=202010080921001&code=940100](https://news.khan.co.kr/kh_news/khan_art_view.html?artid=202010080921001&code=940100)
- 이미정(2020). 코로나19와 젠더폭력: 가정폭력 현황과 대응. 한국여성정책연구원 브리프. 제 61호.
- 장은하, 김희(2020). "코로나19와 성 불평등: 해외 사례를 중심으로." 한국여성정책연구원 브리프. 제54호
- Berg, G. and Others(2018), Digital labour platforms and the future of work: Towards decent work in the online world, Geneva, International Labor Organization(ILO).
- Boniol, M. et al.(2019), "Gender equality in the health workforce: Analysis of 104 countries", Health Workforce Working Paper, No. 1, World Health Organization, <http://apps.who.int/bookorders>.(accessed on 2 March 2020)
- Dlamini, J. (2020). Gender-Based Violence, Twin Pandemic to COVID-19. Critical Sociology. 1-8.
- Fisher, A. N., & Ryan, M. K. (2021). Gender inequalities during COVID-19. Group Processes & Intergroup Relations, 24(2), 237-245. <https://doi.org/10.1177/1368430220984248>
- OECD(2020a). Women at the core of the fight against COVID-19 crisis, OECD Publishing, Paris.
- OECD(2020b). COVID-19 Policy Brief on Well-being and inclusiveness, <http://www.oecd.org/coronavirus>.
- OECD(2020c). UN Secretary-General's policy brief: The impact of COVID-19 on women. <https://www.unwomen.org/en/digital-library/publications/2020/04/policy-brief-the-impact-of-covid-19-on-women>

- OECD(2020d). Women at the core of the fight against COVID-19 crisis, OECD Publishing, Paris. [https://read.oecd-ilibrary.org/view/?ref=127\\_127000-awfnqj80me&title=Women-at-the-core-of-the-fight-against-COVID-19-crisis](https://read.oecd-ilibrary.org/view/?ref=127_127000-awfnqj80me&title=Women-at-the-core-of-the-fight-against-COVID-19-crisis)
- UN Women(2020a). COVID-19 and Ending Violence Against Women and Girls, New York. <https://www.unwomen.org/-/media/headquarters/attachments/sections/library/publications/2020/issue-brief-covid-19-and-ending-violence-against-women-and-girls-en.pdf?la=en&vs=5006>
- UN Women(2020b). COVID-19 in Latin America and the Caribbean: How to Incorporate Women and Gender Equality in the Management of the Crisis Response, New York. <https://lac.unwomen.org/en/digiteca/publicaciones/2020/03/covid-como-incorporar-a-las-mujeres-y-la-igualdad-de-genero-en-la-gestion-de-respuesta>
- UN Women(2020c). The Shadow Pandemic: Violence Against Women and Girls and COVID-19, New York. <https://www.unwomen.org/-/media/headquarters/attachments/sections/library/publications/2020/issue-brief-covid-19-and-ending-violence-against-women-and-girls-infographic-en.pdf?la=en&vs=5348>
- UN Women(2020d). Rapid gender assessment surveys on the impacts of GUIDANCE DOCUMENT COVID-19. (출처: <https://data.unwomen.org/publications/guidance-rapid-gender-assessment-surveys-impacts-covid-19>)
- UN Women(2020e). Surveys show that COVID-19 has gendered effects in Asia and the Pacific. (출처: <https://data.unwomen.org/resources/surveys-show-covid-19-has-gendered-effects-asia-and-pacific>)
- UNEFA(2020). Covid-19: A Gender Lens.